

21 Europe 1 - People all around the world



영국 - 사회생활 첫 회사가 영국계 회사였다. 연말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지점장이 본사에서 온 전문가라며 텔렉스를 보여 주었다. 일년 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상적인 내용이었다. 다만 말미에 "내가 이런 실적을 받아 들었다면 한강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문맥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문장이 있었다.

지점장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그가 말하기를 "영국인들은 상대방 앞에서는 정중

으로 존중이 필요하다. 동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먹히는 게 차라리 낫지 프랑스에서 처럼 겁질이 벗겨져 인간의 몸에 평생 걸쳐져 있고 싶겠나?' 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점잖으나 신박한 논리에 개식용 문화를 힐난했던 여성의 원래 동그란 눈이 더 커졌다.

그때 나의 왼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몰타에서 온 자그마한 체구의 친구가 받아서 말했다. '몰타에서도 프랑스가 주축이 된 중세의 십자군 전쟁 시기에 겪었던 굶주림의 영향으로 인해

수백 명이 한번에 들어가는 텐트 수십 개가 세워져 있었다. 텐트마다 운영하는 맥주 회사가 달랐다. 라거 밖에는 모르던 나에게 처음 맛보는 **밀맥주**는 신세계였다. 맥주잔이 1 리터였다. 서빙을 하는 여자가 양 손에 8 잔을 움켜쥐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녔다. 브라스 밴드가 연주하는 웅장한 연주가 넓은 축제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정작 하고자 하는 내면의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비포아서** 슬쩍 남기는 안 좋은 버릇이 있다." 그래서 영국인과 말하거나 일할 때는 앞에서 좋은 말을 해도 항상 뒤끝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당신도 영국인인데 그렇냐고 되물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잘 대해주었다. 그러나 그도 종래에 상처를 남겼다.



저녁이 되었다. 질서있게 생활 하던 수 천명이 한꺼번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에 나는 갑자기 서늘함을 느꼈다. 현악기는 빠진 행진곡이 **군가** 같다고 느껴졌다. 잔디밭에는 과도한 술로 몸을 못 가누는 몇 명이 누워 연주에 맞춰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들렸다. '호프 브로이 하우스'에서 전쟁을 선동하던 목소리와 오버랩 되는 건 나의 착각이었을 것이다.



프랑스 - 베니스에서 열린 이탈리아 관광청 행사에 갔다. 본 행사를 마치고 이어진 프로그램 중에서 와이너리 투어에 참가했다. 각국에서 온 관계자들과 풍광 좋은 **와이너리**에서 점심을 즐기고 있었다.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몰타에서 온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런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졌다. 그냥 지나쳤다. 불쑥 그녀가 나에게 한국에서 왔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 '너희 한국인은 **개**를 먹는다는데 너도 먹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질책하듯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서 따로 답하지는 않고 물끄러미 쳐다봤다. 종래에는 '야만적'이라는 단어까지 들렸다. 전 세계에서 모인 모두 다 여행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한 열린 자리여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좀 당황했다.

그때 나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스페인에서 온 나이가 지긋한 분이 '각 나라의 문화에는 나름의 **역사**가 있어서 **현상**만 볼게 아니며 기본적

몰타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개를 먹는 문화가 남아있다'며 테이블 위의 와인 잔을 들고서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개들**의 평안을 위해'라며 건배를 제안했다. 모두들 티지려는 웃음을 겨우 겨우 참으며 해프닝은 마무리되었다. 프랑스 숙녀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해보인건 아마도 노을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21



독일 - 뮌헨을 갔다. 도시는 깨끗했다. 사람들은 단정했다. 이태리처럼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체계적이며 흐트러짐 없는 질서가 잘 잡힌 도시였다. 뮌헨을 간 목적인 '옥토버 페스트'를 갔다. 지금은 지나치게 흔해져 버렸으나 그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에 축제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을 때였다.



스위스 - 오메가 매장이 스위스에는 없다. 롤렉스 매장도 없다. 스위스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유통망은 전자랜드 같은 양판점 시스템이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BUCHERER** 다.

스위스에 가면 다들 시계 구경을 한다. 여행객이 특정 시계에 관심을 보이면 직원은 해당 테이블에 **커튼**을 친다. 방해 받지 않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다.

BUCHERER
1888

한국에서 두 번째 다닌 회사는 **스위스 회사**였다. 매년 지역 관계자 **모임**이 서울에서 열렸다. 각자의 이해관계로 다툼이 생긴다. 다른 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외없이 산악 지형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온 이들도. 참석한 전 유럽에서 모인 이들이 푸념처럼 이야기한다.

ps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자신이 평소 **쳐다보는 하늘의 폭** 딱 그만큼이라고. 탁 트인 삶의 풍광을 보며 살아야겠다.